



대전 1인가구 비중 39.4% 10집 중 4집 '나 혼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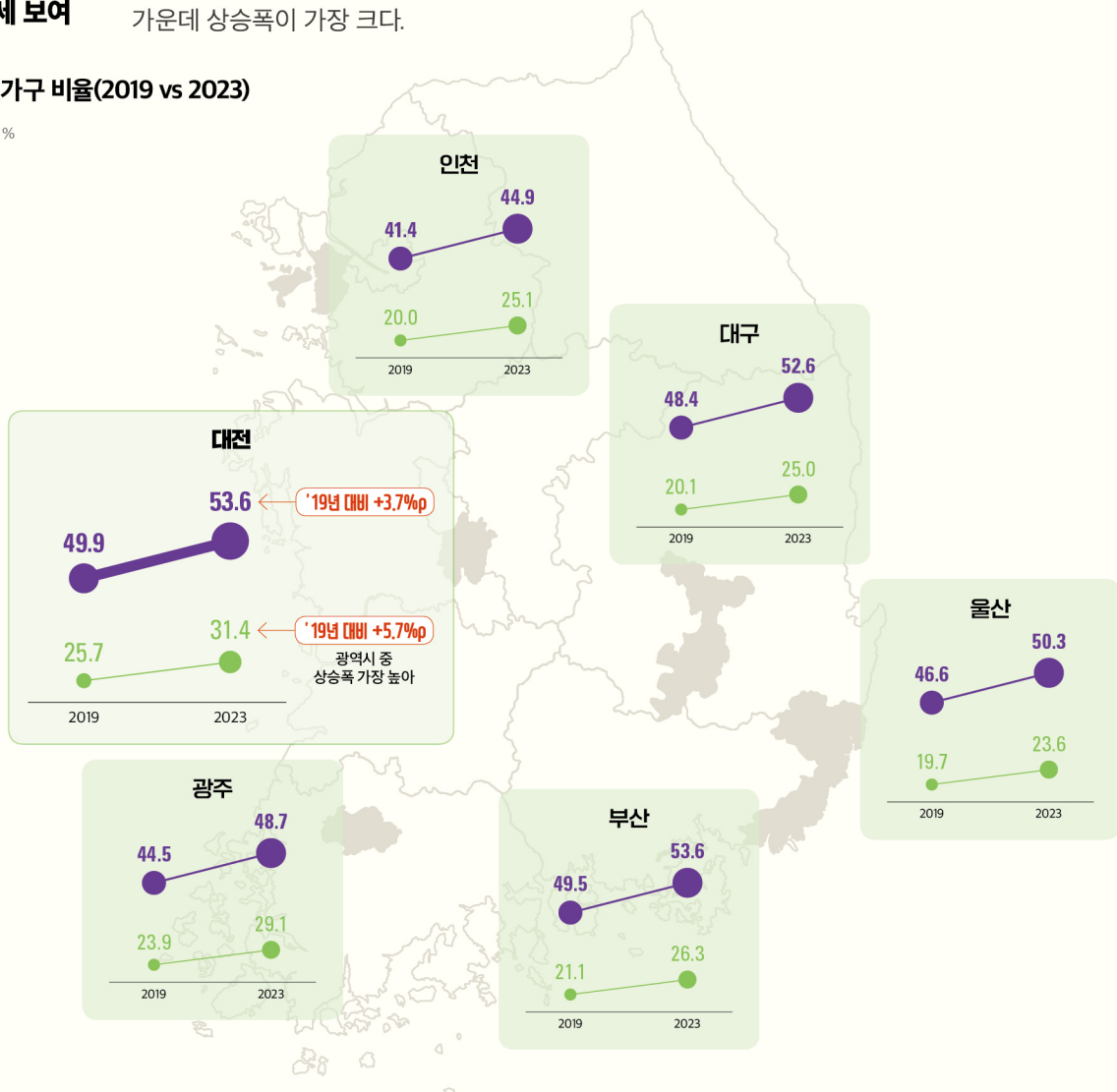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 혼밥, 혼술, 혼영. 혼자의 '혼'을 활용하여 생겨난 신조어다. 혼삶이 삶의 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홀로 살아가는 1인가구를 흔하게 볼 수 있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전 1인가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 39.4%로 2019년 대비 5.7%p 상승했다. 대전 1인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35.5%)과 비교해도 높고,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 지역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고, 그들의 요구를 조사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전 남성 1인가구 비율, 광역시 중 가장 큰 오름세 보여

2023년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는 여성 일반가구(235,400가구)의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전 (49.9%)보다 3.7%p 증가했다. 대전 남성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5.7%에서 5.7%p 상승한 31.4%로 광역시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크다.

6대 광역시 1인가구 비율(2019 vs 2023)

● 여성 ● 남성 단위: %



· 1인가구 비율: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 (1인가구수 ÷ 일반가구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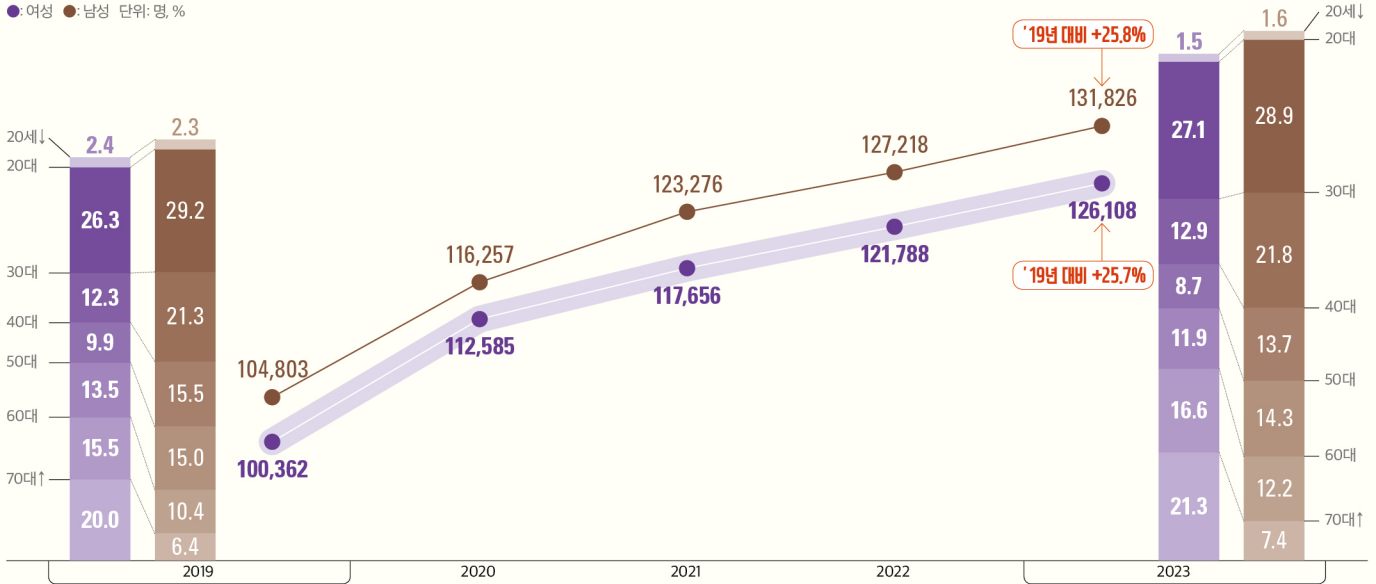
·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5인 이하 가구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청년층과 고령층 1인가구 가파르게 늘고 있어

대전 여성과 남성 1인가구는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증감률 또한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남녀 1인가구만 줄었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늘었다. 성별·연령별 분포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는 20대와 30대,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19년에 비해 비중이 높아졌으며, 남성 1인가구는 3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 증가했다. 특히 60대, 70세 이상 여성과 남성 1인가구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20대 여성 1인가구 ('19년 대비 +0.8%p)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대전 1인가구 추이(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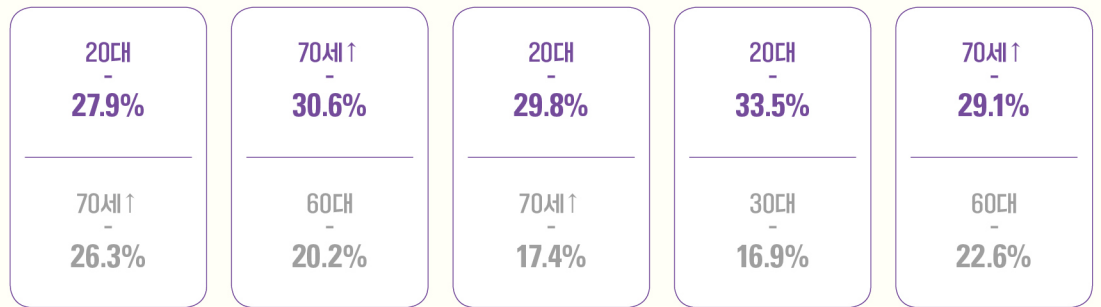


20대 여성과 남성 1인가구 가장 많은 곳, 유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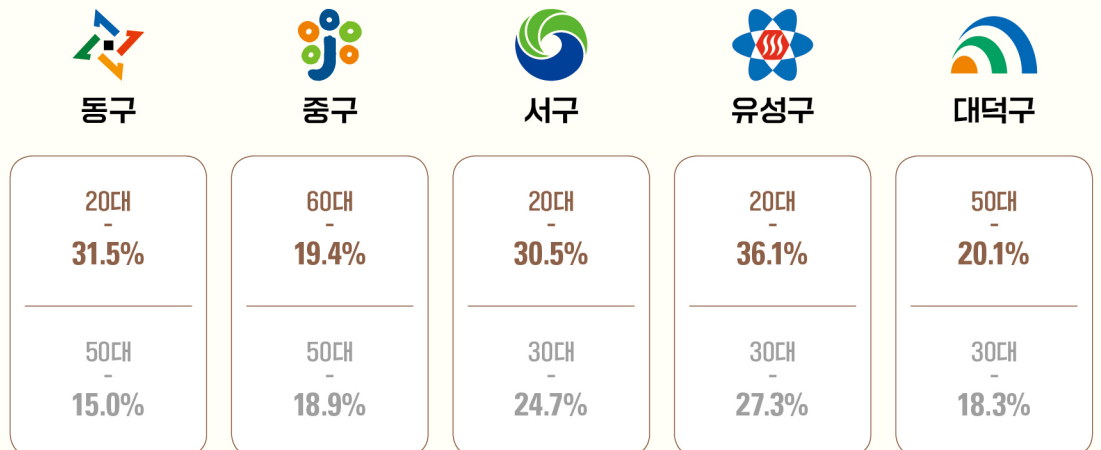
대전은 전국에서 20대 1인가구 비율(28.0%)이 가장 높은 곳이다. 여성과 남성 각각 연령별 구성비를 대전의 5개 자치구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청년층 1인가구는 유성구, 서구, 동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고령층 1인가구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은 중구, 대덕구로 나타났다.

대전 자치구 1인가구 성별·연령별 구성비(2023)

여성 1인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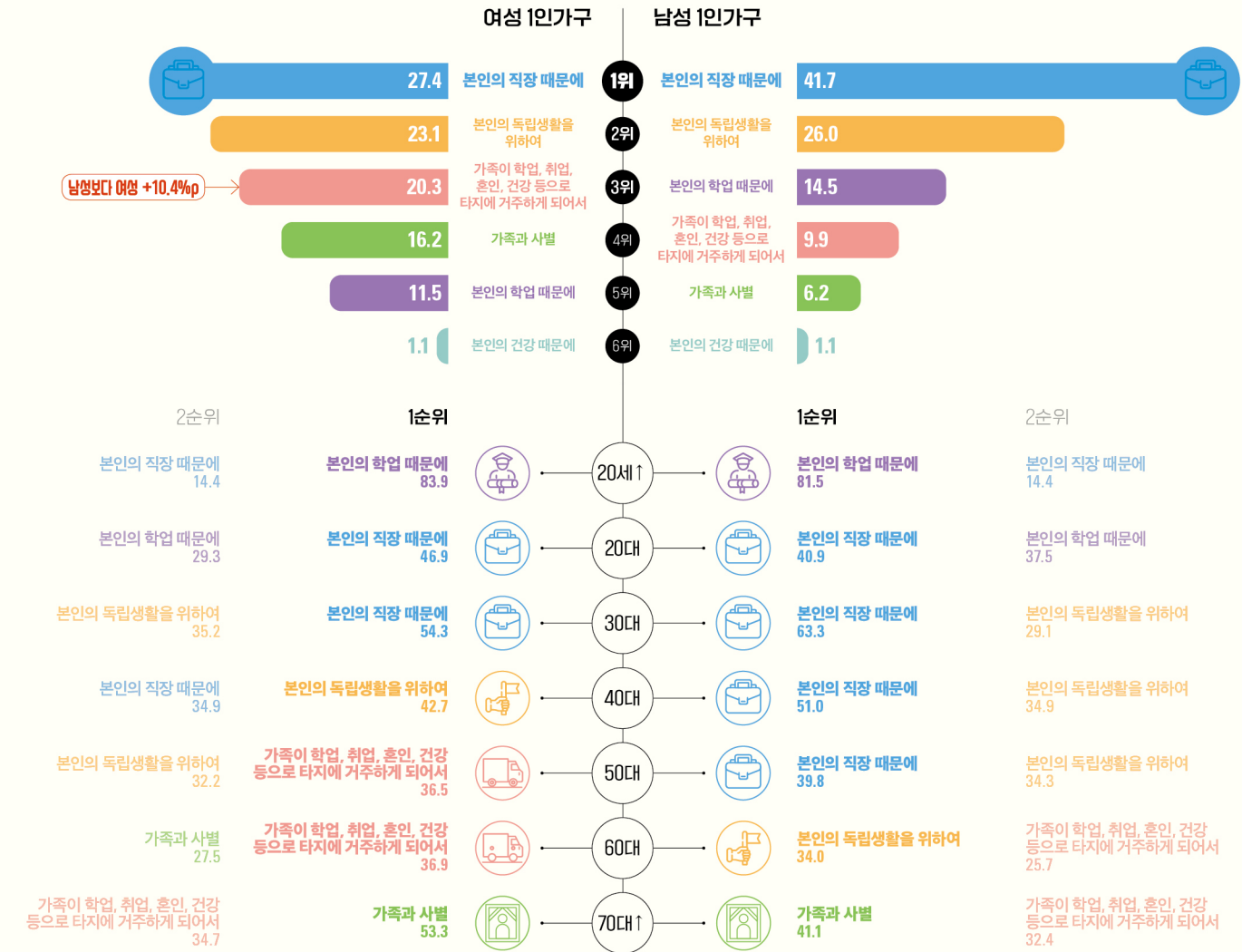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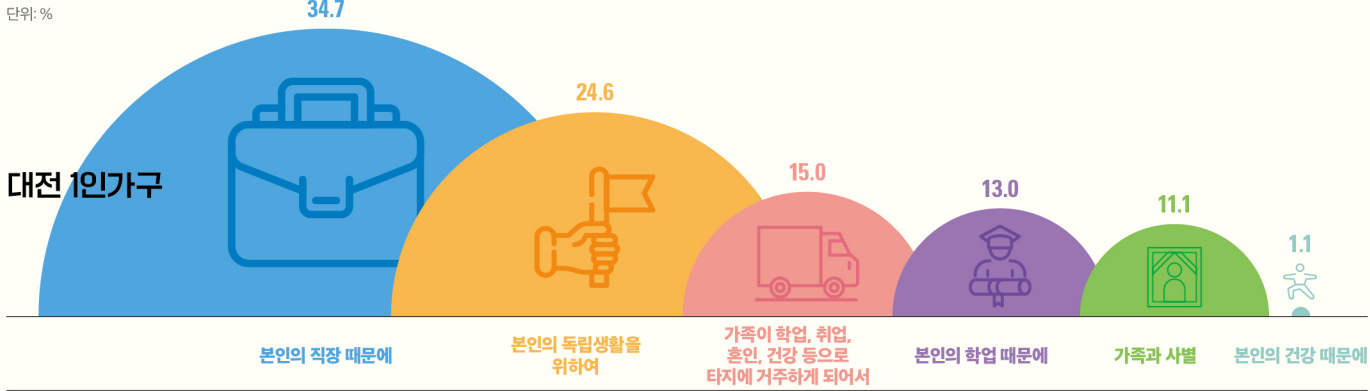
남성 1인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인가구로 사는 이유?
여성, 남성보다
'가족 사유' 비율 높아

대전시민들이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사유로 본인의 직장(34.7%), 본인의 독립생활(24.6%)을 꼽았다. 그 뒤로는 가족 사유(15.0%), 본인의 학업(13.0%), 가족 사별(11.1%), 본인의 건강(1.1%) 순이다. 성별·연령별로 쪼개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의 직장, 본인의 독립생활, 본인의 학업 비중은 낮고, 가족 사유(20.3%)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여성은 50대부터 가족으로 인한 사유 비중이 1순위로 보여지는 반면, 남성은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가족 사유와 가족 사별이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로 생활하는 이유(2020)



· 기타 제외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